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는 원리

출 38:21-31

2021년 10월 27일(수)

1.

오늘 본문은 성막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성소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21-23절은 성막 공사를 담당한 세 사람이 언급됩니다.

이다말, 브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막내 아들인 이다말을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재정부장(회계)을 맡긴 겁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레 10:1-2).

그래서 이후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막내 아들 이다말이 형들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엘르아살의 자손들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을 번갈아 감당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다말은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아론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재정부장(회계)을 맡은 겁니다.

또한 브살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비딤 광야에서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었던 유다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자요, 성막을 건축하는 현장감독을 맡았습니다.

또한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아히사막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아히사막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홀리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아히사막의 바램과 기도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일에 현장 조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다말, 브살렐, 오홀리압,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이들이 그만큼 대단한 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다말은 4형제 중 막내입니다. 브살렐은 할아버지 훌이 유명한 것이지 그가 유명한 자는 아닙니다.

또한 이다말은 아론의 자식이요, 브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지만,

오홀리압은 별 영향력도 없는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기도의 삼겹줄을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치셨다면,

시내산 광야에서는 사역의 삼겹줄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겹줄이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2.

24-31절까지는 성소 건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은 건축에 들어간 ‘금’에 대해서,

25-28절은 건축에 들어간 ‘은’에 대해서,

29-31절은 건축에 들어간 ‘놋’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건축에 들어간 금의 양은 ‘스물 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인데, 오늘날 단위로 환산 약 1톤(1,000kg)입니다.

또 은의 양은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인데, 오늘날 단위로는 약 3.4톤(3,400kg)입니다.

또 놋의 양은 ‘칠십 달란트와 이천사백 세겔’인데, 오늘날 단위로는 약 2.4톤(2,400kg)입니다.

금과 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의 속전 곧 생명 값으로 받은 것입니다(30:13-16).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반 세겔의 은을 속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낸 ‘금과 놋’이라는 예물과, 20세 이상 성인들이 낸 ‘놋’이라는 속전으로, 성막이 지어진 겁니다.

‘금과 놋’이라는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한 ‘은’이라는 속전이 상징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30장 13-16절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반 세겔의 은을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헌신’으로 드려진 예물과 ‘순종’으로 드려진 속전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헌신과 순종’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 봅시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성막을 일컬어 ‘증거막’이라고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겁니다.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십계명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십계명 돌판을 보관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고,

십계명 돌판을 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단 두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이었습니다.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용서’였습니다.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불쌍히 여겨지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 못하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형제)에 대한 사랑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이웃(형제)에 대해서는 '용서와 용납'으로,
십계명에 응축된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됩시다.

4.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이다말, 브살렐, 오홀리압이 삼겹줄이 되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이 삼겹줄이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삼겹줄이 되고, 사역의 삼겹줄을 이루어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 성막을 짓는 일에 금과 놋이라는 예물과 은이라는 속전이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놋이라는 예물은 자원해서 드려진 '헌신'을 상징하고,

은이라는 속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진 '순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지으실 것입니다.

셋째, 성막은 십계명을 두었기에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이웃(형제)에 대한 사랑의 핵심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형제)에 대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와 사역의 삼겹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과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용서와 용납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합시다.